

“인도주의의 가치 실현... ‘나눔의 감동’ 전파”

박재홍 제32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취임 회원들과 소통 기반 속 재난·긴급구조활동 강화 다짐

“회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적십자 가치인 ‘인도주의 운동’을 확대, 발전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홍(영무건설 대표이사·사진) 제32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이 2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앙리뒤낭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적십자사’를 강조했다.

취임식에는 허정 전임 회장과 곽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제32대 회장 선임증을 수여받은 박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19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 보편의 인도주의 가치를 지키고 실천해 온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인도주의 사업기관”이라며 “회장으로서 지역의 인도주의 운동을 발전·확대시키고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박 회장은 ▲재난·긴급구조 활동 강화 ▲회원 참여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꼽았다.

박 신임 회장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피해를 겪는다”며 “대한적십자사는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 긴급구조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주의의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

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대한적십자사의 핵심적 가치인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회원들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그들의 열정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함과 지속적인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박 신임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주의 활동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확보해 적십자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전남지사가 사·도민들과 함께 적십자운동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통해 ‘나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 나아가자”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신임 회장은 지난 2017년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2018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부회장직을 수행했다. 2021년엔 적십자 회원 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여 받았다. /주성학기자

윤경철 전남대 교수 한국건강안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는 윤경철(사진) 의과대학 교수가 한국건강안학회 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한국건강안학회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안구건조증을 포함한 눈물질환을 연구하는 안과 의사들의 전문 학술 단체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건강안학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 눈 건강과 관련한 신약 및 의료가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윤 교수는 지난 2008년 국내 최초로 건강안 연구 동물실험실을 개설했고 한국콘텐츠학회 학회 회장, 한남각막학회 회장, 대한안과학회 학술위원장 및 수련위원장,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위원장, 아시아각막학회 학술위원장, 미국 시과학과학회 학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남대병원 진료부원장을 맡고 있다.

윤경철 신임 학회장은 “이미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국내 건강안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안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국민 눈 건강과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이지사



광주매일신문, 희망나눔아동센터 ‘NIE 3차 교육’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이 지난 22일 광주 광산구 희망나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신문 만들기 실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차, 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 등을 공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우성(월곡중 1)·양세형(월곡초 6)·김대승(월곡초 6)·김연희(영천초 6)·김은율(월곡초 5)·이재우(월곡초 5)·양세인(월곡초 4) 학생은 편집전문프로그램인 인디자인을 활용해 직접 사진과 기사를 배열하는 등 교육에 열의를 보였다.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김영록 지사, 영암군민속씨름단에 공로패 수여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영암군민속씨름단에 전남 우수 농수산물 홍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로패를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김기태 영암군민속씨름단 감독, 김민재(백두금)·차민수(한라금)·최정만(금강금) 장사가 함께 했다.

영암군민속씨름단은 2017년 1월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총 88회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명문 씨름단으로서 우리나라 전통씨름의 진흥과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

지난 8·13일 열린 충북 보은대회에서 3개

급 정상에 등극했고 직전 강릉단오대회에서 3개 체급 장사를 배출하며 전국 최강 씨름팀임을 입증했다.

“잡채기” 기술이 주특기인 주장 최정만 장사는 이 기술로 승리할 때마다 10만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잡채기’ 행사로 모은 기부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민에게 영암군민속씨름단은 큰 자랑”이라며 “씨름단이 민속씨름 제2의 전성기를 누리도록 지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도시공사,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활동

광주도시공사는 23일 “최근 금남지하도상가 만남의 광장 일대에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세리문’팀과 함께 ‘지하 낙원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침체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스탬프 투어’, ‘퀴즈쇼’ 등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통해 지하도상가 내 젊은 세대 유입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광주은행 굿즈 증정, 팔찌·키링 만들기 체험, AI 기반 무인로봇 시연회 등 여러 즐길 거리가 함께 진행됐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가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니어층뿐만 아니라 젊은층 유입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광주 우산LH1 주거행복지원센터, ‘난타’로 주민 소통

광주 광산구 우산동LH1 주거행복지원센터는 “최근 입주주민들과 함께 ‘순가락장단난타’를 하면서 소통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참가자들은 난타의 기본동작과 순가락 장단을 익히는 한편, 노래와 함께 연습하면서 이웃 간 친목을 다졌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챙겼다.

이해연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순가락을 이용한 간단한 동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을 다졌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챙겼다.

이해연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순가락을 이용한 간단한 동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목포해양대 LINC3.0사업단 ‘가족회사 교류의 날’ 행사

목포해양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최근 이틀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가족회사, 유관기관 임직원, 교직원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가족회사 교류의 날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산·학·연이 만드는 혁신, RISE가 이끄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3차년도 신규 가족회사(엔씨데이터, 다이얼테크 등 10개 회사) 현판 수여식과 산학 협력 우수 가족회사 표창(비디아이티, 볼링마스타 등 5개 회사), ‘AI 기반 수산양식공간 지능형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소개, ‘스마트항만-물류 산업전환 공동혁신센터’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한원희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은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업 시대에 목포해양대에서 실행 중인



산·학·연 협력은 그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하는 시스템이고 프로젝트”라며 “지역산업체, 지자체와 협력을 진작시키고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경기도청소년활동센터 협약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최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숙박 프로그램 주 이용 대상이었던 학교 단체에서 청소년 관계기관이나 청소년 단체 등으로 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규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친해 환경인 여수에서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오세경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원장은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여수에서 청소년들이 심신을 치유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은 2021년 9월 개원 이래 부산시, 오산시, 남원시, 고흥군, 진주시 등 권외 지역 청소년들 대상으로 숙박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수시의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알리고 연계하고 있다. /여수=김진선기자

전남여성정책포럼 역량강화 워크숍 ‘성로’

전남도는 23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지역 여성 리더와 함께 2024 전남여성정책포럼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김은숙 전남여성정책포럼 상임대표,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과 여성도의원 8명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도정 정책을 논의하고 도의회-집행부-회원 간 소통·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전남 여성가족정책 홍보 영상, 전남 여성가족 중심시책 이해, 전남 여성리더 정책간담회, 지역 현안 소통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동행, 여성·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도모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정책포럼에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고견을 주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 구현을 위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담양 봉산면 지사협 ‘이음반찬’ 나눔활동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취약계층 50여가구를 대상으로 ‘봉산면 이음반찬’ 나눔활동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산면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매월 진행되는 ‘봉산면 이음반찬’ 나눔활동은 박영아 담양애꽃 대표가 기탁한 후원금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 나눔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 활동은 봉산면 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수확한 감자와 마늘을 사용해 감자조림, 장조림, 열무김치, 무김치, 김자장 등을 만들어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김순희 봉산면 여성자원봉사회장은 “무더운 날씨 속에 이른 아침 회원들이 모여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며 “맛있는 반찬을 받고 행복해 할 이웃들을 생각하니 기쁘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본사손님

▲남호현 광주 남구의회 의장 ▲박용화 * 부의장 ▲박상길 * 기획총무위원장 ▲신중혁 * 사회건설위원장 ▲노소영 * 의회운영위원장